

농약은 꼭 알고쓰자



농약공업협회 홍보실 제공

농약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농약이 농업발전과 식량증산에 이바지한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농약없는 농사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뿐아니라 현대 농업에 있어서 농약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사용은 불가피하고 선진국일수록 농사에 쓰이는 농약의 양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동안(77—

79) 32개 예찰소에서 조사분석한 것을 보면 無防除畝에서 평균 26.3%의 감수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농가에 따라서는 수확이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병충해방제 즉, 농약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방제효과가 19.3%(3개년 평균)나 되며 이것은 쌀로는 776만 석,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11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액수이다.

농약에 대한 바른인식을 갖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그러나 농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약

은 항상 위험하다는 인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 사실 농약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어류, 조류, 익충 등에 독성이 적고 농작물에 뿌려진 농약이 빠른 대사과정을 거쳐 완전 무해한 물질로 변했으면 더할 나위없는 바램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조건을 구비한 농약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가지 생명체를 없애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약인데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춘 농약을 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한가지 쉬운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늘먹는 영양제(비타민)도 많이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는데 하물며 농약이야 정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농약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들을 일부에서 문제시하고 있으며 각 매스컴에서도 혹독하게 비판을 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면과 -면이 있게 마련이다. 완전무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면만 강조한다면 여기에서 야기되는 혼란과 오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농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해 방지는 한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관

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막연하게 농약은 위험하다, 너무 많이 쓴다, 농약중독환자가 늘어난다는 등 떠들어 뱌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알려주는 친절이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농약의 위험성만 강조 하면 소비자는 먹는데 불안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농민대로 당혹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농약은 정밀한 검사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다

농약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약 한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쓰여지는 경비와 기간 등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미국농약협회」가 조사보고 한 바에 따르면 1976년 4건, 1977년 3건만의 농약이 등록된것으로 나타났고 1977년에 투입된 연구비만도 전매상고의 8.1%를 차지한것으로 밝혀졌다.

선진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오랜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화합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는 기대밖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농약원료를 수입해서 국가시험 연구기관의 엄격한 시험과정을 거쳐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농약자체의 결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만든 농약이 효과가 없고 시장성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농약생산을 할것인가도 생각해볼 일이다.

농약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과는 달리 자연환경과 직결되고 야외에서 살포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그때 그때 기상환경 요인에 따라 방제효과가 똑같을 수도 없으며 이론과 일치되기도 어려운 농약자체의 특이성을 안고 있는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농약산업이 4반세기의 역사를 가졌지만 현재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농약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가를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농민들은 농약회사들이 폭리나 취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

고 있고농약자체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약은 잘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쓰면 오히려 해가 된다

농약을 사용하는 실수요자들도 차례에 깊은 반성을 해야될줄 믿는다.

실제 농촌에 가보면 농약을 무슨 모기약 뿌리듯이 마구 다루는데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론 농약업계에서도 농약안전사용에 대해 많은 계도활동을 해오고 있다.

농약포장지에 쓰여져 있는 사용방법, 희석배수, 주의사항등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고 살포해도 그리 큰 문제는 안될 것이다.

또 적어도 살포시에는 부장만이라도 완전하게는 못갖춘다하더라도 상식적인것만 갖추고라도 작업에 임해야만 되겠다.

상식적인 말같지만 「농약은 잘쓰면 약이되고 잘못 쓰면 해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농약 안전사용수칙을 꼭 지켜야만 하겠다.

(인)

농정차관보 趙益來씨 식량차관보 李丙基씨

(사)

정부는 지난 14일 농수산부 농정차관보에 趙益來 농산국장을, 식량차관보에 李丙基 식량국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